

R&D 투자 효율성을 고려한 강소기업 수준별 특성분석 :기술개발, 사업성 및 기업성과 간의 관계를 중심으로

(최종보고서)



2017년 10월



한양대학교 지식서비스연구소
Hanyang University Institute of Knowledge Service

제 출 문

본 보고서를 “R&D 투자 효율성을 고려한 강소기업
수준별 특성분석:기술개발, 사업성 및 기업성과 간의
관계를 중심으로”의
최종 사례연구 결과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17년 10월

연 구 주 관 : 한양대학교 지식서비스연구소

연 구 기 간 : 2017. 5. ~ 2017. 10. (6개월)

연구책임자 : 박 현 지 (한양대학교)

지식서비스연구소장 귀하

※ 본 보고서는 중소기업청에서 시행한 컨설팅대학원 및 컨설팅 R&D 센터 사업 지원으로 연구되었습니다.

〈목 차〉

〈Abstract〉	1
Ⅰ.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Ⅱ. 이론적 배경	4
2.1 강소기업의 정의	4
2.2 강소기업 육성 및 지원 사업 현황	6
2.3 강소기업 핵심역량과 기업성과의 관계	8
Ⅲ. 연구모형 설계	13
3.1. 1차 연구(선행연구) 결과	14
3.2. 연구 모형 및 가설	14
Ⅳ. 기업 분석	16
4.1. 분석대상 기업의 특성	16
4.2. 변수의 조작적 정의	16
4.3. 연구 결과	19
Ⅴ. 결론	22
〈참고문헌〉	24
〈부록〉	26

〈Abstract〉

현재 우리나라 정부 및 민간기관에서는 경쟁력을 갖춘 중소기업을 강소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지원 사업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사업 목적과는 달리 기업 규모를 사업 신청자격으로 규정하여 잠재력을 가진 중소기업이 지원 대상에서 사전에 배제되는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다. 또한 활발하게 진행되는 강소기업 지원 사업에 비하여 강소기업 관련 연구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며 연구 분야는 강소기업의 공통적인 특성 도출에 한정되어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현 상황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강소기업 수준별 R&D 투자에 대한 특성 차이를 도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연구 설계를 하였다. 2014년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실시한 ‘글로벌 창의·혁신 우수기업 육성 사업’에 참여한 기업을 대상으로 하여 진행하였다. 강소기업 진화과정에 따라 강소기업을 효율적 강소기업, 비효율적 강소기업으로 분류하여 R&D 투자에 따른 강소기업의 특성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강소기업 수준에 따라 R&D 투자가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의 크기, 경로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강소기업 수준별 R&D 투자에 따른 특성 차이를 분석하여 첫째, 강소기업 관련 연구의 폭을 확장하였으며 둘째, 강소기업 육성 사업의 대상 선별 기준은 규모가 아닌 특성을 반영해야 한다는 점을 환기시켰고 셋째, 집단별 차별적인 지원의 필요성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주제어 : 강소기업, 히든챔피언, R&D 투자, 기업성과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우리나라는 대기업 위주의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으나 전산업 기준으로 사업체 수의 99.9%가 중소기업이며, 종사자수의 87.9%가 중소기업에서 근무하고 있다. 양적으로 판단할 때 중소기업은 우리나라 산업의 다수를 구성하므로 우리나라 경제의 지속적 성장을 위해서는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한 균형 잡힌 경제 생태계 발전이 요구된다(이기은 외, 2012; 장영순 외, 2007).

이에 우리나라의 정부 및 민간기관에서는 중소기업 중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고 판단되는 기업을 선별하여 강소기업이라 지칭하며 육성 및 지원하고 있다. 중소기업청의 지역 강소기업 경쟁력 강화사업,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사업, 월드클래스 300 및 글로벌 전문기업 육성 사업, 한국수출입은행의 한국형 히든챔피언 육성 사업, 기업은행의 IBK 수출강소기업 500 프로그램, 삼성전자의 올해의 강소기업 등 다양한 강소기업 육성 및 지원 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장우 외(2010)에 따르면 강소기업은 규모는 작지만 강한 경쟁력을 갖춘 기업으로 히든 챔피언(Hidden champion), 가젤(Gazelle)기업, 고영향기업(High impact firm), 중견기업과 유사한 개념이다.

그러나 현재의 강소기업 육성 및 지원 사업들은 기업의 규모를 지원 자격 기준으로 두어 역량은 갖췄으나 규모가 크지 않은 기업이 지원 자체에서 배제될 수 있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이영주 외, 2012). 이는 강소기업 육성 및 지원 사업의 목적을 고려할 때 적합하지 않으므로 강소기업의 특성을 파악하고 반영하여 선별기준을 정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또한 강소기업 육성 및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기업들에게 일률적인 지원을 함으로써 지원의 효과성, 효율성이 부족한 상황이다.

윤정목(2015)은 강소기업 연구는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강소기업 육성 및 지원 사업 실정에 비해 미흡한 상황이라고 하였다. 강소기업 관련 연구를 살펴보면 현재 연구의 대부분은 강소기업의 공통적인 성공요소, 특징을 도출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러한 학계의 현황은 다양한 관점에서 강소기업 연구를 필요로 한다.

본 연구는 강소기업과 관련한 실무적, 학문적 상황의 문제점을 인지하고, 윤정